

<노면전차>

1호 트램 성공하면 전국 확대… 국내 대중교통 바꿀 열쇠

국내 1호 트램 ‘오륙도선’

남구가 신개념 대중교통체계인 무가선 저상트램의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후보지(우선협상대상 1순위)로 선정됐다. 경성대~이기대어귀삼거리 1.9km 시범노선의 성공 여부는 남구의 교통속원 해소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뿌리를 바꾸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

자가용 억제·버스노선 조정 필요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란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자가용 승용차의 수요를 줄이려는 대책이다. 교통수요관리는 도로 공급 중심의 교통대책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서, 현대 도시교통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해 도로 공급은 토지 확보나 경제성 면에서 한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지하철과 달리 도로를 달리는 트램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자가용 이용 억제와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할 최대 과제다. 그래서 이번 노선 중 도시철도역에서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도로 폭이 좁은 용소삼거리~부경대 정문 430m구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자가용이나 택시 등은 운행할 수 없고, 버스나 트램 같은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트램이나 버스 같은 노면 교통수단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자가용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우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설치되면 보도 폭이 넓어져 보행자가 걷기 편해지고,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상충이 없어져 대중교통의 운행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업이 발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서면의 동천로(0.74km)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부산시가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경험을 살려 용소로 트램 구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성공적으로 설치한다면 국내 도시교통 정책의 새로운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트램을 설치하는 곳의 도로가 좁다는 고민은 수원이나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다. 따라서 남구가 트램 설치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에 대해 먼저 경험하고 여기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한다면, 우리나라의 트램 도입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램은 지하철과 달리 기존 교통체계를 많이 손봐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무시하고 기존 지하철처럼 건설만 끝내고 나 몰라라 한다면, 트램과 도로교통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트램은 트램대로 불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기존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승객도 없는 트램 때문에 괜히 교통만 불편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트램 도입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트램 도입과 함께 교통체계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표적 것으로는 버스노선조정이 있다. 현재 오륙도선 구간과 똑같이 운행되는 부산 시내버스는 24번, 27번, 131번 등이 있다. 트램이 도입된다면 이들 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버스와 트램이 함께 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안전 문제도 없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2층 버스와 2층 트램이 바로 옆 차선에서 함께 잘 달린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대중교통공급을 재구성하

여 더욱 효율적인 도시 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와 트램의 중복 구간을 줄여 신노선을 개발할 수 있고, 공급이 부족했던 곳에 추가로 버스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이 같은 버스노선 조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매우 힘든 일이므로 부산시와 남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트램 도입에 따라 도로교통체계가 변경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가용, 택시, 소상공인(특히 유료주차장,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조립주차구역, 택배 등)과도 진솔한 대화를 하고, 논의와 설득을 해야 하며, 그 과정도 잘 기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트램 실증사업은 단순히 철도시스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자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트램 홈페이지 운영을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업을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시민들 간의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별 사업 홍보에도 효과가 크고 공지사장들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승객 입장에서 트램은 기존 지하철의 특성과 이용방법이 많이 다르다. 건설 단계에서도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 차단 정보 등의 다양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것을 상세히 알리는 게 시급하다.

트램 연구단과 남구 입장에서 이 같은 홈페이지의 존재는 시민들의 의견을 빠르게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사업 진행에 활용하면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사업 방향을 올바르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문 받고, 의문을 풀어줄 수도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트램이 되는 것이다.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은 단지 검증만 하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트램을 전파시킨다는 중요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트램의 수요자는 일반 국민인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구보고서나 논문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선 반지하 등 창의적 고민을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고부차량 경전철의 경산 시험선, 자기부상열차 인천공항 시험선 등이 있었지만, 정작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도시에 지어지는 이번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은 수요와 향후 연장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오는 2022년 남구에 국내 최초로 운행될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의 출발역인 경성대~부경대역의 조감도. 대학로 430m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트램 이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해 보행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430m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

교통체계 손질 불가피… 불이익 받는 대상 포용을

건설 이전단계부터 적극적 시민홍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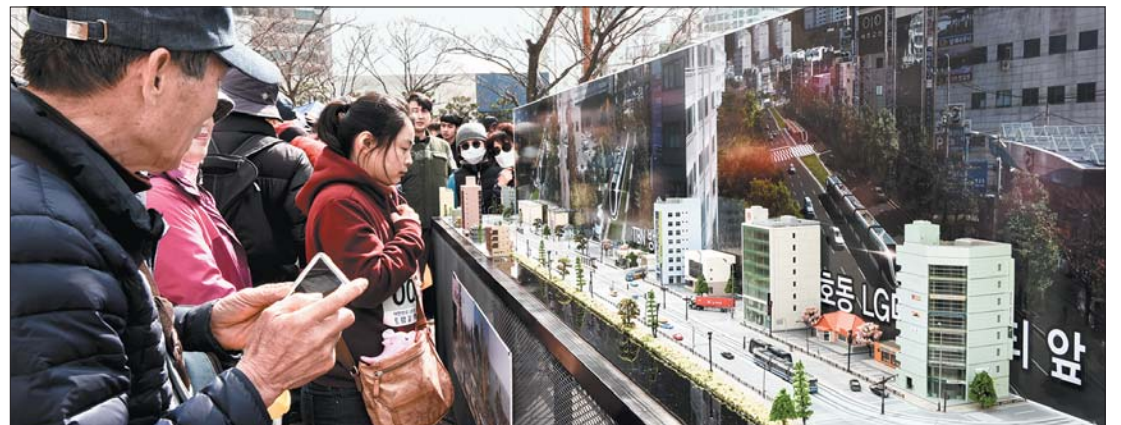
협소도로 등 지형극복 위한 발상의 전환도

다만 옹호로의 협소와 공사중 우회도로 부족, 성모병원 입구 급구배 등이 트램 설치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만큼, 오륙도선 전 구간 개통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트램과 자동차가 함께 달리는 혼용차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구간은 부분 반지하화를 하는 등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다. 사회가 달라지면 교통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트램을 이용해 대중교통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트램 유치를 적극 지원했던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트램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트램이 지역의 이물질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한우진(교통평론가, 미래철도DB 운영자, 한국도시철도협회 자문위원)



지난 23일 트램검거기 축제 참가자들이 4m 길이의 트램 디오라마(배경과 함께 설치한 모형)를 구경하고 있다. 현재 남구청 2층 민원어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

도로 달리는 전차… 기술발달로 전세계 수요 급증

트램이란

노면전차로 불리는 트램(TRAM)은 철도차량이 별도의 철길이 아니라, 차들이 달리는 차길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부산에서도 노면전차가 도심을 다녔지만 인구증가, 차량증가, 전기공급 등의 문제로 1968년에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트램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대중친화적인 교통망으로 다시 각광받으며 전세계 400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다. 보통 트램은 중앙버스전용차로처럼 도로 중앙차선으로 달린다. 고정된 궤도를 따라 달리기 때문에, 달리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버스에 비해서는 차도 폭이 덜 필요하다.

굴착 작업을 하지 않아 지하철보다 건설비용이 많

■신형 저상 트램 특징

- 다량 편성을 통한 수송력 증대
- 계단이 필요 없는 초저상 구조로 승하차 시간 단축
- 대형 전방창과 미려한 디자인
- 미관이 중시되는 곳에서 전력공급선을 생략할 수 있는 배터리 주행
- 높은 차량 성능으로 빠른 속도와 가속도, 승차감

개는 1/6에 불과하고 공사기간도 훨씬 짧다. 특히 오륙도선은 외부 전력 공급선을 얹고고 자체 배터리를 충전해 달리는 무가선 트램이 도입된다. 오륙도선은 2020년 상반기 노선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연말까지 완공, 2022년부터 상용 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성인 학생모집

- 부산예원고등학교
- 예원여자중학교

2년만에 졸업하는 성인어머니(중, 고등)학생 모집
늦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공부 할 차례입니다!

주간반(9시) / 야간반(6시)

중학교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편입 가능 •졸업장 취득(검정고시 없음) •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전액 무료
고등학교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졸업자 / 고교 편입 가능 •졸업후 대학진학(수시 가능) •교육비 : 한달 16,660원 •기초수급자 수업료 전액 무료
본교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부지정 어머니 학교 •21년 전통의 부산 최고의 여성 전문 교육 학교 •부산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들만 공부하는 전용 건물 •중학교 예비학교 무료 운영(국, 영, 수 기초수업)

버 스 : 42(남구) / 99(진사정) / 179(당감동) / 184(정관) → 옥성화학 하차 → 학교
4호선 : 금사역 3번 출구 → 마을버스6번(선수촌아파트 ↔ 온천정역) → 회동동 하차 → 학교
1호선 : 온천정 4번 출구 → 마을버스6번 → 회동동 하차 → 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51(회동동)
학력인정 부산예원, 고등학교
입학상담 (051) 526-1852~3

유료광고

유료광고

고통적 장래문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모 형제처럼...”
MOU협약단체에는 **특별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배 도 성

·남·수영구주민 **빈소 50%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빈소 무료(일반실에 한함)
장제비 (교인용품)는 50만원으로 행사를 치려드립니다.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광안동) T. (051)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구 동래백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1 (부곡동) T. (051)582-1041 (24시간 응급)

기장병원 장례식장 T. (051)724-1024

S2 FLOWER 에스텍 꽃집
제단장식 전문/근조, 축화환, 화분
T. (051)627-4880 F. (051)622-1045

고등학교 학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이나 청소년을 위한 ‘1년3학기제’
만학도 학생모집
(고등학교과정, 야간)

모집학과
호텔조리과
- 요리
- 제과제빵
- 바리스타

특전
• 2년만에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 **대학진학 가능**
•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 컴퓨터, 응급처치, 자격증정사 자격증 등)
“수업료 월16,660원”

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체육, 미술, 국사 등

모집대상 : 만 16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신분)

오늘의 배움은 내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입/학/상/담 010-8532-3403
051) 523-0209, 524-0932

학력인정 **부산경고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 91-5(금사동)

유료광고